

국별 리포트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 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331천 Km ²	G D P	1,036억 달러(2010년)
인구	87.8백만 명(2010년)	1 인 당 GDP	1,180달러(2010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Dong(D)
대외정책	사회주의지향 친서방 노선	환율(달러당)	19,127(2010년 평균)

-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으로서 1986년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오면서 경제개혁 및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최근 들어 점차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농업부문은 쌀(세계 2위 수출국)이 외에도 수출작물로 커피생산이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석유 개발의 성공으로 원유가 최대 수출상품임.
- 2007년 12월 이후 물가상승으로 주가 폭락,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 경제불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긴축정책과 경기부양조치 등을 수행하여 경제가 안정세를 보였으나, 2010년 7월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베트남 경제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 1976년 통일 이후 남부 출신의 총리, 중부 출신의 대통령, 북부 출신의 총서기장 등 권력의 3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2006년 4월 18일에서 25일까지 개최된 10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총리와 대통령을 모두 남부지역 출신이 차지하며 정치적 배분보다는 경제개혁에 집중하고 있음. 제11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개혁파인 응웬 쩐 중 총리가 유임되어 향후 베트남의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8.5	6.3	5.3	6.8	6.3
재정수지/GDP	-7.3	-5.2	-7.0	-5.5	-4.8
소비자물가상승률	8.3	23.1	7.0	9.0	18.7

자료: IMF 및 EIU.

□ 경제성장세 지속

- 2003년부터 5년간 제조업 및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연평균 8.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베트남 경제는 2008년 들어 물가 급등, 주가 폭락,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의 경제 불안을 보였으나,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였음.
-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4분기 이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 일, EU의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2008년 기준 수출이 전체 GDP의 70%(교역규모는 GDP의 154%)를 차지하는 베트남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5.3%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음.
- 그러나 베트남 경제는 여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하여 경기 위축이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GDP의 66%에 이르는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내수시장이 외부적 경제충격을 완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10년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6.8%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추정됨.

□ 인플레이션 우려로 물가안정 정책 추진

- 2007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식료품 가격과 소매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유동성 공급이 확대

되면서 2008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에 달하였고, 주가지수 폭락,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 경제 불안 현상이 확대되었음.

-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은 2008년 2월 1일자로 우대금리를 8.75%로 0.5%포인트 인상한 이후 동 금리를 14%까지 인상하여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긴축정책이 2008년 하반기 이후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의한 경기 둔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0%에 그쳤음.
- 그러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사회 인프라 및 복지 부문에의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와 대출 증가, 신용 확대, 통화의 환율 인상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0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0%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1년 2월에 기준금리를 9%에서 11%로 인상한 후, 추가적으로 4차례에 걸쳐 1%p 인상하는 등(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5%까지 상승함)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

- 재정수지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 인프라 및 사회복지 부문에의 재정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석유 수출액 급증에 의한 재정 수입의 지속적 확대로 GDP 대비 4~5%의 적자를 유지하였으며, 2008년에는 하반기 이후의 경기부양정책 추진으로 GDP 대비 5.2%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베트남의 석유 수출로 인한 재정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베트남 제1위의 수출 품목인 원유의 수출이 주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Dung Quat 정유공장 가동으로 크게 감소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복지부문 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정부 목표치인 5%를 초과한 GDP의 7%까지 상승하였으며 2010년 이후 내수 시장의 회복과 수출산업 호조로 정부 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관료주의로 행정 소요시간 및 비용 과다

- 외국인 직접투자시에 제도상의 투자 허가기간 보다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됨. 투자허가와 그 이후의 토지 사용계약, 공장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실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당초 예상보다 인허가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함.

□ 열악한 사회 인프라

- 전력부문은 전국적인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전 및 배전망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손실, 전력 품질의 저하, 정전이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임.

□ 불균형적인 발전

-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과실이 외국인 투자지역인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의 대도시에만 집중되고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과의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특히 2006년 이후 유동성 증가로 인한 증권 및 부동산 부문에서의 버블 발생 및 2008년 중의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안 등으로 향후 베트남 내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 또한 개방경제하에서 신흥 부유층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점차 소득 향상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계층간의 갈등이 향후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경제성장 잠재력

- 1986년의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 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 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이후 베트남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최근 10년간(2000~09년) 연평균 7.3%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가능성도 큰 상황임.

□ 양질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상당수의 월남 난민들이 홍콩, 호주,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해외교포들 및 그 자녀들의 국내 귀환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외국에서 유학한 고급 노동력 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치적 안정

-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총서기장, 총리, 대통령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 세력이 미약해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안정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경제 불안 극복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

- 베트남 정부는 2008년 상반기 중 본격화된 경기 과열로 인한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중앙은행 기준금리 14%로 인상, 국내통화량 흡수를 위해 13억 달러 규모의 금융증서 발행, 국영기업의 신규투자 전면 금지,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강력한 긴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2008년 4분기 이후에는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오히려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였음.
- 특히 2009년 들어서는 중앙은행 기준금리 7%로 단계별 인하, 8개 분야 총 8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조치, 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보조금 지급, 개인소득세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경기 회복을 시도하였음.

□ 외국인투자 일시적 위축 이후 회복세 전망

- 2006년 7월, 내국 투자법 및 외국인투자법을 통합한 투자법을 제정하고 기업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허용분야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제조업 및 유전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FDI 유입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2008년중 외국인투자 승인액이 사상 최대인 1,171건, 603억 달러(유입액은 15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전체 승인액의 54%가 공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2009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크게 감소하여 2009년 중 외국인투자 승인규모는 839건 163억 달러, 유입액은 51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임. 2010년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로 외국인투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경제

□ 경기회복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 2008년 상품수지는 섬유류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입액 증대, 외국인투자 확대에 의한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 증대, 그동안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인한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금의 수입 증가, WTO 가입 및 AFTA 추진으로 인한 관세율 인하로 수입수요 증대, 주요 수출품인 쌀의 수출 금지 등으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 상 수 지	-6,953	-10,787	-6,117	-5,681	-5,659
경 상 수 지 / GDP	-9.8	-11.9	-6.6	-5.5	-5.1
상 품 수 지	-10,438	-12,782	-8,307	-7,736	-8,139
수 출	48,561	62,685	57,096	72,071	92,414
수 입	58,999	75,467	65,403	79,807	100,553
외 환 보 유 액	23,472	23,882	16,027	14,098	..
총 외 채 잔 액	22,737	24,964	28,674	32,807	36,809
총 외 채 잔 액 / GDP	33.5	29.0	29.4	30.0	31.7
D. S. R.	2.0	1.7	1.6	1.4	1.2

자료: IFS 및 EIU.

- 2009년에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특히 중간재 및 원자재의 수입규모가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5.9%로 대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21.6% 증가에 그치면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일시적 감소세

-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및 대외원조의 유입 확대와 함께 베트남 해외교포의 송금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말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23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 말에는 베트남의 수출산업 부진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 동화의 환율 급등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보다 49% 감소한 160억 달러로 축소되었음.
- 중앙은행은 달러 확보를 위해 베트남 국영기업에 대한 보유 달러 매각 지시, 2010년 1월중의 10억 달러 규모 국제채 발행, 2009년 11월 이후 2차례에 걸친 동화의 평가 절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수출시장의 회복, 해외 교포로부터의 송금 증대, 외국인투자 증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동(Dong)화의 평가절하 시행

- 베트남 동화 환율은 2008년 이후의 경제불안 현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승세(평가절하)를 보이고 있음. 2009년 들어 정부는 동화에 대한 시장 환율을 반영하기 위해 환율 변동폭을 5%까지 확대하였고, 2009년 11월 들어 베트남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면서 동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게 됨.
-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 2009년 11월 25일, 동화의 대미달러 기준 환율(은행간 거래환율)을 5.44% 인상하는 전격적인 평가절하를 단행하였고 환율변동폭은 기준환율 대비 상하 5%에서 3%로 축소하였음.
- 2010년 들어서는 2월 11일 기준환율을 17,941동에서 18,544동으로 3.36% 인상하였으며, 8월 17일에는 18,544동에서 18,932동으로 2.09% 인상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축소되지 않았고 2010년 말 기준 베트남 외환보유고가 156억 달러로 더욱 감소하자 중앙은행은 2011년 2월 11일 기준환율을 기존 18,932동에서 20,693동으로 8.5% 절하함.
- 상품수지 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유입 회복 등 베트남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환율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양허성 차관 위주의 양호한 외채구조

- 2010년 말 기준 대외채무 비중이 GDP 대비 30%에 그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4%에 불과해 대부분의 외채가 중장기 공적채무임을 나타내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베트남 공산당 체제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1976년 통일 이후 남부 출신의 총리, 중부 출신의 대통령, 북부 출신의

총서기장 등 권력의 3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2006년 4월 개최된 10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총리와 대통령을 모두 남부지역 출신이 차지하여 정치적 배분보다는 경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11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정부 주요 요직 교체

- 제11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총서기는 보수파인 응웬 푸 쯡, 대통령은 개혁파인 썬언 썬 상이 새로 선출되었고, 총리는 개혁파인 응웬 썬 중이 유임되어 향후 베트남의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2. 사회동향

□ 부정부패 해소 대책 착수

- 공무원 및 국영기업 간부의 부정부패 만연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판 반 카이 전(前)총리는 반부패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국회도 국가감사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특히 10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각된 'PMU 프로젝트 횡령사건'으로 불리는 일본 ODA 자금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 정부 내 많은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당대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큰 파문을 초래하였음.

□ 소수 민족과의 대립이 사회불안 요소

- 베트남은 중앙고원지역에 많은 소수 종족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경제여건 개선 조치를 통해 2001년 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소요사태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라오스와의 국경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몽족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몽족들이 과거 베트남 전쟁 시 미국을 도와 북베트남과 대립하였고 현재에도 체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빈곤 퇴치에 성과

- 최근 들어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과 국제원조에 힘입어 빈곤퇴치에 성과를

거둬 빈곤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원조국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3. 국제관계

□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

- 2005년 6월 종전 후 최초로 판 반 카이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였고, 2007년 6월에는 응웬 밉 쩌엣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됨.
- 한편 국경 마찰 등 역사적으로 잦은 분쟁을 겪은 중국과의 대외 관계도 2005년 7월 당시 쩌 득 르엥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의 해상 및 육상 국경 분쟁을 2008년까지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9년 2월 23일, 중국과 국경 경계선 확정을 마무리 하는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

□ 대외개방 외교정책 기조 유지

- ‘다양화, 다변화’라는 외교 정책 기조 하에 경제 위기로 인한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EU와의 경제협력 및 관계 개선에 힘쓰는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음.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려 함.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2009년 4월 정부의 재정악화와 금융위기 이후 베트남 국영은행들의 과잉 유동성 공급, 국영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가 경기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 3대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베트남은 아직은 투기적 등급에 속하고 있으며, 2008년의 베트남 경제 불안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전망을 모두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하였으나, 등급 조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이후 대외채무의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베트남 정부의 대응능력 취약 등을 지적하며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0. 3)	C1 (2009.11)
OECD	5등급 (2011. 4)	5등급 (2010. 4)
S&P	BB- (2010. 12)	BB (2006. 9)
Moody's	B1 (2010. 12)	Ba3 (2007. 3)
Fitch	B+ (2010. 7)	BB- (2009. 6)

* Euromoney: 79/186 (2010. 3) → 75/186 (2010. 9) → 71/186 (2011. 3)

* I.I.: 79/178 (2009. 9) → 76/178 (2010. 9) → 80/178 (2011. 3)

* I.C.R.G.: 70/140 (2009. 11) → 73/140 (2010. 2) → 81/140 (2011. 2)

- Fitch사는 2010년 7월 29일 베트남의 대외채무 증가와 금융산업의 취약성으로 경제 및 재정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베트남의 장기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BB-(Negative)에서 B+(Stable)로 하향 조정하였음.
- S&P와 무디스도 2010년 12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상품수지 적자와 자본유출이 심화된 점과 베트남의 경제 불안시 대응능력 취약을 지적하며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각각 BB(Negative)와 Ba3(Negative)에서 BB-(Negative), B1(Negative)로 하향 조정하였음.

□ 베트남 국제채 발행 성공

- 2006년 1월, 7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최초의 국제채 발행에 성공한 이후 베트남 재무부는 추가적인 국제채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10년 1월에 이르러서야 10억 달러 규모의 국제채 발행에 성공하였음. 발행조건은 만기 10년, 금리는 연이율 6.95%로 미국채 10년물 기준 스프레드 3.33%임.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제한적 인수 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2월 12일 (북한과는 1950년 1월 30일)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무역협정(1993년), 항공협정(1993년), 투자보장협정(1993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세관협력협정(1995년), 과학기술협정(1995년), 원자력협력협정(1996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5>

한·베트남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베트남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7,805	7,149	9,652	직물, 철강제품, 유기화학품
수 입	2,037	2,370	6,460	농산물, 섬유제품, 전자부품
합 계	9,842	9,519	16,112	

자료: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는 2008년 9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대 베트남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는 9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10년에는 16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수교 19년 만에 26배나 증가하였음.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12월말 현재 5,878건, 64억 6,914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기준으로 대 베트남 외국인투자국 중 한국이 승인 및 유입기준 제2위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2003부터 5년 동안 제조업 및 민간부분의 성장으로 연평균 8.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베트남 경제는 2008년 들어 물가 급등, 주가 폭락,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의 경제 불안을 보였으나,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였음.
- 세계 경기침체로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2008년 기준 수출이 전체 GDP의 약 70%(교역규모는 GDP의 154%)를 차지하는 베트남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5.3%로 하락하였음. 2010년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6.8%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추정됨.
- 총리, 대통령, 총서기 등 권력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부실 금융 해소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및 미국과의 대외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음.
- 열악한 인프라, 행정 비효율, 부정부패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성이 큼. 그러나 양허성 차관 위주의 양호한 외채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수출산업과 더불어 내수 시장도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 관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